

제60차 연구원 임시 이사회 개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홍수)은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었다. 최삼규 이사장을 비롯하여 총 14명의 이사 및 감사가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연구원의 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와 함께 원장 및 선출직 이사, 비상임 감사 선임의 건 등이 부의되었다. 최삼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업계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연구원은 더욱 분발해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산업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연구하고, 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연구원의 제7대 원장으로 이상호 한미글로벌 사장을 선임하였다.

‘2016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성료

연구원은 지난달 3일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16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홍일 연구위원과 허윤경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자로 나서 “2016년 건설 경기 전망”과 “2016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을 발표하였다. 이어 스페셜 세션에서는 유의성 연구위원이 “조기경보체계(EWS) 도입을 통한 해외건설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발표하였다.

국회 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

연구원의 김민형 연구위원은 지난달 10일 정성호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의원회관의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해외 진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해외건설 지원 정책 현황 및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같은 달 13일에는 이영환 연구위원이 김성태 의원 주최로 한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노후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 개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노후 인프라 시설의 실태와 안전 및 성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제24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참여

연구원의 심규범 연구위원은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에서 “건설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발제하여 일본 건설 관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은 한국과 일본의 건설 전문가들이 양국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순차 개최하는 모임이다.

건협 주최 ‘지방 순회 설명회’에서 경기 전망 강연

연구원의 이홍일 연구위원은 대한건설협회가 지방 회원을 대상으로 주최한 지방 순회 설명회에서 ‘2016년 건설경기 전망’을 강연하였다. 이번 강연은 지난달 10일(창원), 13일(제주), 23일(대전), 26일(춘천) 각각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CERIK